

여름철 무더위 대비 ‘주거환경 개선’ 집중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위해 총 8억원 투입 ‘3대 주거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해피하우스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총 8억 원 규모의 3대 주거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별로 서비스 대

상과 사업 규모, 주거 형태, 서비스 품목 등을 달리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약 4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대해 창호, 도배장판 등 주택 내부 주요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현재까지 올해 선정된 103가구 중 약 52.4%(인 54가구)에 대한 보수가 이뤄졌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에 대비해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도배장판 교체 등 시급한 품목부터 신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약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위소득 60%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다.

시는 건축 및 전기시설의 소규모 보수와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 약 1154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시는 여름 전 각종 전기설비 누전 점검과 위생 설비 부족품 교체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다.

끝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사회취약시설의

냉·난방 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내용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에어컨 교체 및 설치, 단열 및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시는 무더위 전 올해 선정된 145곳에 대한 냉방기 설치 및 교체를 완료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기로 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함께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더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정연구위원(위원장 박미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복지복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전주시정연구위원,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시정연구위원(위원장 박미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복지복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력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성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

지사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박미자 원장은 다음 주자로 이경운 전북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하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목했다.

박미자 원장은 “인구문제는 시민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과제이며,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인식 개선과 제도적 대응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연구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인구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덕진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관찰됐다.

전주 덕진공원에서 멸종위기 동물들 잇따라 발견

전주 도심 속 생태공간인 덕진공원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곳이 야생동물의 새로운 서식처이자 생태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덕진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관찰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수달과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은 맑은 수질과 안정적인 서식 환경 없이는 서식이 어려운 동물들로, 덕진공원의 생태적 건강이 크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덕진공원은 야생동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며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러한 덕진공원의 생태복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호수 수질개선 △남생이 보호 및 서식지 복원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여기에 시는 올해 △열린광장 조성 △창포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덕진공원 관련 기반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MZ세대 ‘텍스트 힙’ 열풍 타고 전주 도서관 여행 ‘인기’

전주 도서관 여행 콘텐츠, 전년 대비 소설 언급량 19% 증가하며 한국관광공사 ‘뜨는 도시’ 선정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힙’ 열풍에 힘입어 전주의 이색적인 도서관들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힙’은 책을 의미하는 ‘텍스트’와 멋지다는 뜻의 ‘힙’의 합성어로 ‘독서하는 행위가 멋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발간보고서에서 전주도서관 여행이 빅데이터로 알려진 뜨는 도시&기대되는 도시에 선정되는 등 전주 도서관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발간보고서는 2024년 6개 소설

채널의 데이터 증가율을 분석한 것으로, 전주 도서관 여행은 2023년 대비 소설 언급량이 19% 증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주 도서관 여행을 올해 9개 코스로 여행 코스를 확장했으며, 재개관한 완산도서관뿐만 아니라 완주의 복합문화공간까지 도서관 여행지로 확대하면서 다채로운 여행 코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은 현재까지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코스가 접수 시작 3일 만에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시는 MZ세대의 도서관 여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위케이션 도서관 여행’도 재개할

예정이다.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위케이션’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MZ세대의 새로운 업무 형태로, 시는 도서관의 다양한 매력을 젊은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개별 도서관 여행자뿐 아니라 도서관 관계·문화계·교육계 등 많은 기관에서도 꾸준히 전주 도서관 여행을 찾고 있다.

현재 기관 대상 전주 도서관 여행은 상반기 신청 마감일 임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북교육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기관 대상 전주 도서관 여행에는 현재까지 14개 기관에

서 240여 명이 찾아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러브코리아 필리핀 보홀에서도 전주의 도서관 문화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전주의 도서관을 둘러보고 SNS에 방문 후기를 업로드했다”면서 “도서관 여행에서 곳곳부터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 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MZ세대에서 텍스트힙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개성 표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문화적 흐름에 발맞춰 전주의 도서관 여행뿐만 아니라 전주책페, 전주독서대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다비치안경체인 봉사단, 무료 안경 맞춤 봉사 펼쳐

다비치안경체인의 ‘눈 건강 시력지킴이’ 봉사단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저소득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경 맞춤 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비치안경체인 봉사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력 교정이 곤란한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시력 정비를 갖추어 어르신들의 시력을 검

사하고 안경, 돋보기를 맞춤 제작하여 무료로 지원했다.

다비치 안경 ‘눈건강 시력지킴이’ 봉사단은 전국 가맹점의 점장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매월 1회씩 지역을 순회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의 눈 건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권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